

국내 주식 투자전략

시가총액 규모별 차별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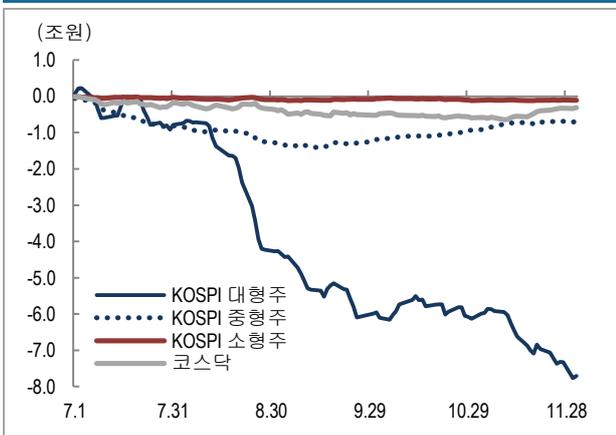


KOSPI, 2,010선 하회

외국인 매도세 지속. 시가총액 규모별 차별적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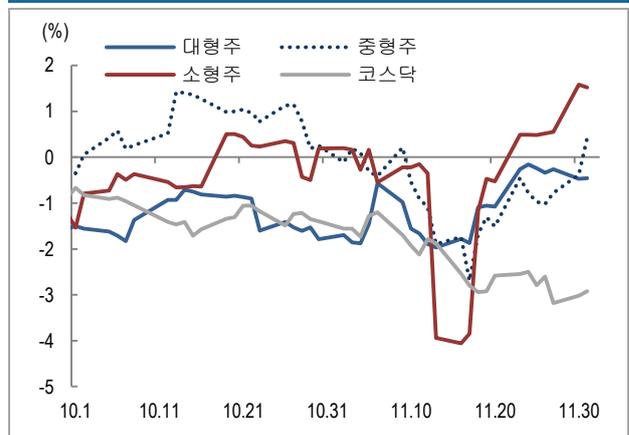
- 전일 KOSPI는 시장에 특별한 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2,010선을 하회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000억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였다.
- KOSPI가 이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전략자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1) 12월 FOMC 회의 앞두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 2) PER기준 밸류에이션 부담, 3) 중장기 이익모멘텀 부진 등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 한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별 수급을 점검해 보면, KOSPI 시가총액 대형주는 하반기 들어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이후 매도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KOSPI 시가총액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소폭 매수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가총액 규모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2016년 연간 영업이익 1개월 변화율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 여기에 단기 어닝스 모멘텀 측면에서도 중/소형주의 우위는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규모별 2016년 연간 영업이익 1개월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중순 이후 KOSPI 시가총액 중형주와 소형주의 이익모멘텀은 빠르게 개선세로 돌아서며 (+)권으로 전환된 반면, KOSPI 시가총액 대형주는 어닝스 모멘텀이 (-)권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하향조정세가 더욱 강화되는 등 시가총액 규모별로 차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 결국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KOSPI 시가총액 중/소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